

Summer. Vol.13

since 2002
소통과 도약의 **EM** 실천
Empowerment Society



Contents Summer.Vol.13



03 감사인사

04 10주년 기념 세미나 보고 '10년 그리고 미래'

06 NEW 패밀리

08 1분기 프로그램 활동기

- 등산, 볼링동아리
- 스트레스교육
- 인권교육
- 관외교육
- 취업유지모임



14 특집기사

- 성년후견제 1년후 시행을 앞두고 _ **한명섭**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협동조합이란 _ **박정식** (한울지역장애인강센터 팀장)



18 우리 결혼해요

20 희망이 활동기(1분기, 2분기)

24 광고

발행일 2012. 5. 24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화 02)875-9744,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10년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러”

안녕하세요. EM실천 원장 김영환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EM실천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처럼 금천구의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의 활성화와 EM실천의 발전방향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신건강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에도 아낌없이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눈부신 발전역사와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항상 봄처럼 부지런 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해마다 봄이 되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조병화 시인 '해마다 봄이 되면' 중에서)

2012년 3월,

이 봄에 분주하게 10년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며 소통하고 도약하는 EM실천의 10주년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새롭게 움직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EM실천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M실천의 모든 종사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M실천 원장

김영환 드림



“ 10주년 기념 세미나 보고

10년 그리고 미래 ”

2011년 10년을 준비하며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기관 10년의 운영을 점검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2012년 3월 16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금천구청에서 ‘금천구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준비한 본 세미나는 금천구청의 후원, 특히 장애인복지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세미나 연구진들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해 2002년 실험적 정신과 혁신의 가치로 시작한 EM실천이 지금의 브랜드가치와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 가치를 중심으로 EM실천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라.
2. 축적된 직업재활 노하우를 토대로 시설 확산에 힘써라.
3. 모든 장애유형으로 이용자 확대하라.
4. 제공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다양화하라.
5. 직업장애인 생활 전반의 임파워먼트 추구하라.



더불어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해주었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통합지원센터 설립
→ 맞춤형 서비스 추진
2. 소규모 사업체 틈새 공략
→ 지원고용 업그레이딩
3. 아파트형 공장 시설 확대
→ 시설의 지역특수화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관심 제고
→ 서울 남서단 직업재활 견인
5. “1사 1시설 연계” → 불황, 편견 극복의
6. 직업재활운영컨설팅, 업종개발지원
→ 비즈니스 능력 극대화



EM실천은 금천구청과 함께 금천구내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기획팀장 박 미 선

“New Family”



강성림

바람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받고
마음씨 좋은 성림씨도 있어요~~

혼자웁소예~ 제주도에서 서울시민이 된
강성림입니다. 제가 서울시민이 되어 다시한
번 EM실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좋아서 도망갔지만 다시 한번 시작
하는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잘 봐줍서~~~예

정상원

전남영광에서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농사짓는 부모님을 도와가며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 서울로 이사를 왔고 지금까
지 지내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며 특기
는 장기를 잘둡니다. 저와 장기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한선택

1973년 5월 19일 서울출생, 대학을 중퇴하고
책과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아
직 해보지 못했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EM실
천이 첫 면접장소이고 훈련장소입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
직도 미정입니다. 앞으로 소망은 어머니와 함
께 좋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과 일해보는 것
입니다. 화이팅!





박민정

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조범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요원 조범선입니다.
신체 건강한 저는 고등학교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오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훈련소 훈련이후 이곳
EM실천에 2012년 2월 6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M실천이라는 곳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EM실천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는
편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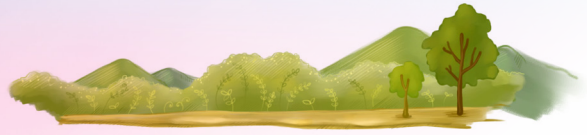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장애인분 모두 정말 잘 해주셔서 금방 적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을 일주일 다녀온 후 제 자리로 돌아오니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2년의 시간동안 이곳 EM실천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복무기간동안 항상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회자

이젠 입원안해야지 했는데 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도 약물 부작용인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25일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바꾸는 날이거든요. ㅎㅎ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번째 관악산 등반, 첫 모임은 산책이었지만 두 번째 등산은 암벽등반이었습니다.
등산하기에 너무나 화창한 날씨, 아침 일찍 모인 우리들은 무거운 몸과 신나는 기분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2월달 등산모임에 함께 하지 못했던 민석, 금주씨도 함께한 관악산 등산!
우리의 목표는 관악산 연주암!! 연주암에 가본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가야 하나라는 두려움으로 열심히 열심히.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몸은 천근만근, 등산을 시작한지 5분도 안되어 속도가 나지 않았고 벌써 부터 헉! 헉!

앞으로 뒤로 잡시다 잡시다, 어서 오세요~ 라며 구호를 내보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제 맘과 몸은 관악산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관악산 국기봉을 지나 연주암으로 가던중 체력의 한계를 보인 우리들은 잠시 산기슭에 모여 준비한 주먹밥과 김밥,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먹으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잠시쉬며 경치감상에 들어간 우리들, 날은 너무 좋고 산 아래 63빌딩, 한강의 줄기를 보며 감탄과 인증샷도 찰칵!

연주암을 코앞에 두고 하산,

하산중 국기봉에 올라가기 위해 국기봉 바위를 올르던 중 우리들의 저질체력은 다시한번 스스로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산아래로 떨어질것 같은 두려움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하란, 지영씨의 두 다리는 후둘후둘~~ 이보다 안타까울수가!

운동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곳은 높은 산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곳은 나와 우리입니다.”

총무기획팀장 박 미 선





“Do you know *Gulrisee*?”

EM실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 Gulrisee(굴리세)는 월1회 정기적으로 6명이 볼링 [bowling]을 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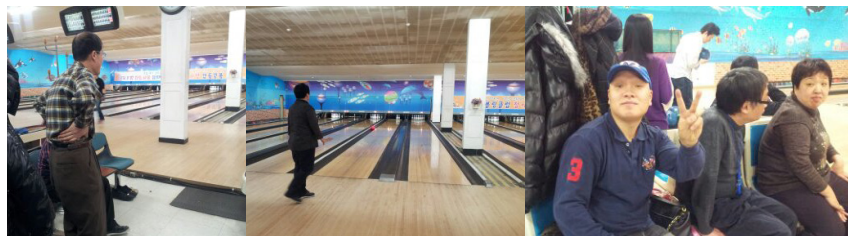
2011년, 홈그라운드인 신림동에 S스포렉스를 떠나 2012년부터는 직장 근처에 있는 G볼링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에 점수계산법이나 치는 방법 등은 잘 모르지만 한게임 한게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사람들이 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치고 있죠. 때론 폼이 아주 이상하고, 연속으로 도랑으로 굴러 떨어질때면 민망하기도 하지만, 스트라이크라도 한번 나오면 이전 것은 짜~~악 잊혀지죠. 모두가 볼링 치는 날을 물어보고 기다릴 정도로 애착이 대단한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힘껏 웃었으면 좋겠네요.

볼링은 더불어서 친목하며 하나되는 매우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동아리 와도 연합하여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볼링동아리 Gulrisee의 힘찬 내일에 함께 해 주세요.^^

직업재활팀장 임 성 수





“ 스트레스 를 날려버리자! ”

기간 : 2, 3월(둘, 넷째주 수요일)

참여자 : 장정임, 임영호, 민성준, 경향미, 김민석

스트레스관리에 취약한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트레스관리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스트레스관리를 잘 할 수 있는 EM실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자 소감

- 장정임 : 명상과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었으며, 서로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여러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임영호 :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였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이 몸에도 좋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좋았습니다.
- 민성준 :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김민석 : 명상을 통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경향미 :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박 수 현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고흐, 처칠, 빅토르 위고, 차이코프스키, 링컨,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존 내쉬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수학자,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랭보, 김용옥, 유진 박, 타블로, 애드가 앨런 포, 헤밍웨이, 고갱, 베토벤, 뉴턴, 아인슈타인, 보들레르 (현대시의 아버지)』들은 정신장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M실천에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없지만 모두 정신분열, 우울, 조울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무능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 통제, 욕구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에 대한 살핌과 정신질환 이전과 이후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무능력한가? 라는 부분까지도, 특히 발병이후 2번이상의 입퇴원과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EM실천과 같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다. 인권교육은 현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동대표인 허진 원장(남성주거시설 새로돌는집 원장)과 인권에 관심있는 5명의 EM실천 근로장애인들이 참여로 진행.

자신의 삶에 무책임하지 않기

장애가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임을 인지하기

장애가 있지만 유명인들과 같이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모델링하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을 통제하기

『증상에 대한 통제는 어렵지만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필요 있다는 등의 과제를 던져준 교육이었다.』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가족이나 의사, 사회복지사, 주변인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다.

총무기획팀장 박 미 선

“

외근의 달인 Project

”

우리 EM실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사원 중 외근업무를 잘 가지 않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두 달간 관외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던 회원들이었기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두들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가기 싫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

다만 외근업무에 앞서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 타 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적으로 외근업무를 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기 때문에 실제 외근업무 시 일어났던 실수담

혹은 오류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em실천과의 거래가 많은 업체를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약도출력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 미숙했던 회원들이 몇몇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정도는 자타공인! 김○기님이 발 벗고 근로회원들을 도와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은 관외훈련교육이지만, 회기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근로사원이 외근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하며..앞으로의 외근업무에 있어 마음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서로 서로 약속해보아요~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고 미 나



외근을 기피하는
자기평가



현장실습후
자기평가



웹상에서
거래처 검색하고 출력하기



“추위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2012년 어느 3월. 따뜻하고 풋풋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MT는 시작됐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달린 30분후, 내리던 비는 눈으로 바뀌고 그렇게 우리의 불길한 MT는 시작됐다. 이동중 김밥과 과자를 배불리먹고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솥을 피워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비싸게 구입한 생생생 삼겹살을 밥도 되기 전에 꿀떡하고 인기오디션프로그램 일명 ‘위탄’을 시청하며 뒷 정리와 내일 간식내기를 위해 우리는 보드게임 ‘젠가’를 시작했다.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집중력~ 진호씨는 손을 떨지(약물부작용으로 손떨림) 않았다. 감사하게 영권씨가 깨끗이 설거지를 해주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지난 과거사를 캐묻기 시작했다. 그 과거사의 주인공은 신영권!! 씁스러운 듯 첫사랑의 이야기를 할 땐 미소를 띄웠다가 아픈 과거사엔 모두들 심각한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12시를 훌쩍 넘어 과거를 되짚어 갔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 약의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 꿈나라~~ 새벽 6시부터 부시럭 거리더니 말순언니가 밥을 하기 시작했다. 더 자고 싶었으나 밥하는 소리에 모두 일어나 눈코를 때고 남은 김치를 넣고 라면을 끓이고 식성에 맞게 카레와 짜장을 선택하여 밥을 쓱쓱 비벼 먹었다. 짐을 정리하고 우리 다음목적지인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출발했다. 남이섬에 가고자 하였으나 눈이 녹은 질퍽해진 땅바닥에 신발을 버린다하며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아침고요수목원 도착!

아...너무 춥다. 봄이 아니었던가? 무서운 칼바람은 우리의 얼굴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는 너무도 맑고 시원하여 마음껏 공기를 흡입하고 10분만에 나무를 떼고 있는 찻집에 들어갔다. 관광은 사람들이 추웠나 보다. 찻집에 모두 모여 있었다. 커피와 차를 후루룩, 영권씨이야기 3탄을 시작했다. 병원에서부터 EM실천에 오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의 현재는 인쇄소의 주임이 되어 있었다.

영권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도 나도 나의 첫 사랑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이야기 하였다.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EM실천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한마음으로! 몸을 녹이고 나와 멋진 풍경에 사진을 박고 숯불닭갈비를 먹으러 GOGO!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차를 탔는데 다시 눈이 온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화창한 봄날과 같았다. 끝!

직업재활팀 선임사회복지사 양 현 모





“ 장애인성년후견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우리의 숙제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 명 섭

000씨(여, 54세)는 지적장애 2급의 선천적 장애외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호자로 어머니가 있으나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회복에 의한 퇴원은 어려운 상태이다.

오빠가 타지방에 살고 있으나 보호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통장을 관리하며 생계비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다.

000씨는 복지관 및 지역사회(교회)의 결연후원금 및 밑반찬 서비스 등의 현물후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일상적 판단능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로 청소, 취사 등의 가정생활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후견제도에 의해 000씨의 후견인이 선임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얼마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성년후견제 지원체계및 운영방안’ 발제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중시, 잔존능력의 활용, 제도의 탄력화·유연화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발원의 전동일연구원은 신상보호와 관련된 해외 사례 중 정신장애인의 잔존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영국의 정신능력법(2005)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능력결여가 증명되지 않는 한 능력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의사결정을 지원한 모든 실용적 조치가 취해졌지만 성과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성년후견제도는 특히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정신건강’ 사업을 벌여 온 한울법인과 산하시설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건과 복지의 분리된 복지전달체계에서 장애인성년후견제를 통해 보건과 복지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 갈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아우르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더 깊은 고민과 실천을 해가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년간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민후견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법인의 기념사업으로 인천에 ‘한울장애인성년후견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자 한다.

“연대와 협동의 사회적 활동 협동조합”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팀장 박 정 식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르헨티나 출신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Messi)가 소속된 ‘FC바르셀로나(FC Barcelona)’라는 이름을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 정의한다.

무한경쟁과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최선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안으로 국가가 시장 관리 체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현재 시장경제체제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장 질서를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이는 국가와 시장의 기능을 통해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과 다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는 이들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 내에서 작동하지만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다른 관점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지만 국가의 통제 역할보다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생성한 민주적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당사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런 협동조합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조합원 제도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출자자인 주인임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주주이자 이용자인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조합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1인 1표의 투표권과 성과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합원들이 나눠가지는 권한을 가진다. 조합원 당사자가 조합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실천의 장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당사자들의 자조 활동이며, 세상을 인간미 물씬 풍기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물론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key point! 협동조합의 제정배경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므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서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우리 ^가결혼 해요.”

2012. 05. 27(일) PM 3:00

손선애 _ 신부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때 하얀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였다.
그는 말도 없었고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며 책을 읽었다. 난 그런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에게 다가가 ‘혈액형이 뭐니?’ , ‘우리 데이트할래’ ??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영화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도 날 좋게 봐 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원했다.
그 해 여름, 그는 퇴근 이후 항상 집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고
어느 비오는날 오후에 동네 공원에서 그는 나의 손에 작은 반지를 하나 끼워주었다.
“항상 내 옆에 있어 줘” 하고 하면서... 이후 우리는 어머니와 나,
그리고 나의 평생의 동반자 철이와 한 집에 산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그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고 있다.



곽철 _ 신랑

나는 이엽실천에 들뜬 마음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들었고, 일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런 나에게 활력소가 되어준건 선애였다.
처음으로 나에게 “저 위에 있는 박스 좀 내려 주실래요” 선애는 그렇게 다가왔다.
회사분들이랑 낚시를 가게 되었고 선애가 많은 응원을 해 주었다.
밤 낚시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가던 토요일 우리는 일을 하러 회사에 나오게 되었다.
극장에서 본 영화는 생각이 안나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마음은 너무 따뜻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데이트를 했다. 같이 영화도 자주 보고 고궁도 가고 공원으로 가고
오이도 갯을 때는 시원한 바다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커플반지를 들고 그녀의 집 앞으로 갔다.
나는 반지를 그 손에 끼워주었고, 그녀도 나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지금은 같은 집에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항상 고마운 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선애에게
항상 고맙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희망이 활동기”



중증장애인지원사업 보수교육 및 사업설명회 (2012.3.13, 22~23)

2012년 중증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수교육은 2011년 중증장애인지원사업을 새롭게 담당하게 된 박수현사회복지사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보수교육 분과교육과정으로 진행된 정신장애 직업재활을 위한 기초교육을 통해 EM실천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제공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2년 노동정책 설명회 (2012.3.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써 보건복지정책에만 귀를 기울이던 EM실천, 그러나 사회적 기업인증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이제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울관악노동지청에서 준비한 2012년 노동정책 설명회에 박미선팀장이 다녀왔고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부문에서 EM실천에 필요한 점을 살펴볼수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서울관악노동지청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 가신청, 노동부사회적기업지원금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EM실천과 긴밀한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2012.4.2)

2009년 지역형사회적기업에서 2011년 5월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의 인가까지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2012년 3월 10주년기념세미나를 통해 EM실천에 대해 관심을 주신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 양현화과장님과 최정운 주무관님이 내방하였다. 최정운 주무관님은 홍보물제작에 관한 디자이너와의 상담으로, 양현화과장님은 첫 방문으로 EM실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개와 금천구내 EM실천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3년 기능보강사업 현장방문 (2012.4.5)

2012년 2월 기능보강사업설명회이후 2013년 기능보강사업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서울복지재단 이건혁선생님이 방문하였습니다. em실천은 과연 2013년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금천구사회적기업가네트워크 2012년 제2차 정기총회 (2012.4.6)

금천구사회적기업가네트워크(이하 금사네)가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많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2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금사네가 금천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모임명칭이 변경되었고 몇몇 정관개정들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사회적가치들이 소통되길 기대합니다.

직원역량강화 : 오피스실무교육과정(박수현, 고미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3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컴퓨터실무활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의 실무활용방안에 대한 것이고 10명이 조금 넘는 소수의 인원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집중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업무 종료 후 늦은 시간까지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빠른업무처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주 남은 교육도 무사히 마무리하여 최강총무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뿌잉뿌잉~~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김종민주무관 기관방문 (2012.4.12)

2012년 3월, 서울시청 장애인복지팀에 다시 복귀한 김종민주임님이 기관방문을 하였습니다. EM실천에 첫 방문인 김종민 주임님은 2011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새롭게 임대한 사무실과 현수막사업에 특히 관심을 주었으며 EM실천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요인 관련 교육 (2012.4.17, 23)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 지역본부에서 교육입니다.본 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지켜야하는 안전사항, 특히 유해·위험성 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지킴으로써 사업장내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교육이었습니다. 2013.1.1일자로 전 사업장에 전면시행예정이며 서울관악노동지청의 관할 사업장은 시범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장의 안전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몇차례 교육이 더 있으며 이를 통해 EM실천 또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12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임시이사회 (2012.4.18)

2012년 2차 이사회로써 EM실천은 지역형일자리사업으로 예산 추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법인의 발전과 시설의 발전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법인의 이사회에서 성과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직업재활네트워크사업, 자원개발사업 TF팀에서 활동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EM실천의 종사자들이 TF팀에서 활동중입니다.

서울시 시책 설명회 및 민관합동포럼 (2012.4.18)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금천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서울시 시책 설명회 및 민관합동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민관의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희망실천 소식지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있게 읽어보세요.



기관내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2012.4.19)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12.4.20)

장애인날 기념, 2012 서울시장장애인취업박람회 (2012.4.20)

이번 취업박람회는 6명의 취업을 희망해 참석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지만 면접 전 준비과정, 면접을 위한 사업체 조사, 면접 등에 최선을 다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며 취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2012년 EM실천과 함께

나눔·소통·도약할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나눔의 EM실천

나눔은 내것은 주고 받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작은 나눔의 소통을 EM실천과 함께 하세요.

소통 1. EM실천에 일거리 제공(인쇄, 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소통 2. 희망이와 실천이 저금통 나눔

소통 3. EM실천 직접후원

(후원계좌 : 예금주 이엠실천)

- 하나은행 577-910004-99104
- 우리은행 1005-202-023861
- 농협 301-0104-7345-41

소통 4. 봉사나눔

- 여가프로그램지원
- 교육프로그램지원
- 직무지도 지원



Thank you

- 서울시 정보담당관실에서 사랑의 PC 5대를 후원, 설치
- 대륭테크노타워 6차 1002호의 KTL경영인증원업체에서 작업장에 중고의자 4개 후원
- 2012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EM실천 가족모임 '희망회'에서 떡과 간식을 준비해 주어서 맛있게 남남~~